

스마트폰이란?

김학용 (<http://hykim.net>)

2009.12.29

최근에 국내에 애플의 아이폰(iPhone)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니아 계층 혹은 IT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풀터치폰(full touch phone)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스마트폰(smart phone)이란 말 그대로 ‘똑똑한 전화기’다.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전화기, 특히 핸드폰이 컴퓨터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컴퓨터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사용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계산기가 필요하다면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네비게이터가 필요하다면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며, 사다리 타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다운받아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된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운받아 설치한 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계산기나 알람시계, 메모장, 스케줄 관리 등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휴대폰처럼 스마트폰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일반 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답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이다. 기존의 일반 폰도 이동통신망(데이터망)을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혹은 위젯)을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스톱 게임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폰의 경우 다운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되어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일반 폰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콘텐츠의 구매 및 다운로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OS)의 개방성 정도와 프로그램 설치의 자유도가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 폰은 반드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다운받아야 하는데 비해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선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망을 이용하는 경우, 콘텐츠를 구매하고 다운로드 하는데 많은 이용 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콘텐츠 구매에 2~3천원, 구매한 콘텐츠를 전송하는데 수 천원의 비용이 든다. mp3 하나만 다운받아도 mp3 가격은 500원이지만, 다운로드 받는 가격은 2~5천원 정도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반면에, 스마트폰의 경우 무선랜을 이용하면 1~2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구매하고 무료로 전송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콘텐츠 가격이 무료인 것도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스마트폰이 도입되

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과 같이 무료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자신들의 수익, 특히 데이터 전송에 따른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KT나 KT(구 KTF)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핸드폰 제조사들에게 국내에 출시되는 단말기에 대해 무료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랜 기능이나 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한 GPS 기능들을 죽인 채로 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말 그대로 횡포를 부렸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던 것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AT&T는 아이폰 사용자들에 한해 자사의 이동통신 데이터망은 물론 무선랜망까지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 열풍이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국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아이폰을 도입한 KT의 경우, SKT와의 경쟁관계, 그리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 인터넷 기반의 통신 환경에 대한 나름의 전략적인 이유로 무료로 무선랜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못해 무선랜 접속을 허용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한편, SKT의 경우 아이폰 도입에 따른 데이터 수익의 감소, 아이폰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 아이폰을 제공하는 애플을 일방적인 정책, 그리고 향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우선 제공이라는 국내 단말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의 이유로 아이폰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폰의 도입 및 스마트폰의 보급에 있어서 LGT는 2010년에 몇 종의 스마트폰 도입 외에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그렇긴 하지만, KT가 아이폰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LGT의 O2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LGT의 경우 이동통신 3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2위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을 6천원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SKT의 Nate나 KTF의 Magic N과 같이 폐쇄된 형태의 콘텐츠 판매 구조를 개방함으로써 KT가 아이폰과 같은 개방형 구조의 스마트폰의 도입을 실행케 한 공이 크다 하겠다.

어쨌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데이터 전송료는 줄어들었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동통신사가 콘텐츠를 판매하나 애플과 같은 단말기 제조사가 콘텐츠를 판매하나 구입해야 하는 것은 똑같이 때문이다. 달라진 것은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판매라는 자신들의 영역을 단말기 제조사에 빼앗기게 됐다는 것뿐이다.

스마트폰의 또 다른 특징은 풀터치 기능이다. 풀터치 기능은 숫자입력판을 이용해 숫자 및 문자를 입력하고 방향키를 이용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대신하는 것이다. 최근에 출시되는 휴대폰들이 인터넷 브라우징이나 동영상 재생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다 보니 넓은 화면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버튼을 줄이면서 선택 및 입력 기능을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그러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풀터치 방식인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 기능 역시 스마트폰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일반폰 → 폴더치폰 → 스마트폰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이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폴더치폰이 사실상 스마트폰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 되었기에 일반폰 → 폴더치폰 & 스마트폰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이 폴더치폰이지만, 폴더치폰은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을 일반 폰과 구분 짓는 특징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아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한 운영체제(OS)나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발 키트 (SDK) 등도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나타난 특징들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무선랜 기능, 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한 GPS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들이다. 그러나, 운영체제 및 SDK와 같은 부분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폰 도입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가 사용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단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그동안 이통사가 독점하던 콘텐츠 보급의 영역을 단말기 제조사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통사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콘텐츠 제공 방식이 개방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말기 제조사들 역시 폐쇄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단말기 제조사들이다. 콘텐츠 판매로 인한 신규 수익원의 확보 외에도 단가가 비싼 고사양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이통사의 통제 하에 놓여있던 프로그램 제공자(PP)들도 나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많은 일반인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반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들은 무선랜을 통한 접속기회 확대 및 콘텐츠 판매 기회의 확대 등으로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마트폰이 고가인 만큼 사용자들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단지 전화나 문자 정도만 사용하거나 일반 핸드폰에 있는 기능들에 만족하는 사용자라면 일반 폰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또한, 다양한 컴퓨팅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일반폰에 노트북이나 넷북 등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